

선교 편지 (2020년 9월)

-고동욱 장로. 고사라 집사(일본 선교사)-

살롬,
요코하마에서 문안을 드립니다. 6, 7 월 장마가 지나가고 8, 9 월의 짙은 더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습도를 가득 품은 더위는 지난 한 해를 대만에서 보냈지만 아직도 저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제 9 월에 태풍들을 큰 피해없이 보내면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기를 기대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인류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느끼며 일본의 부흥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인해 선교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곳에서는 지난 3 개월동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와 현지 정착

4 월에 혼고다이 교회 (本御台キリスト教会)를 통해서 신청한 종교비자를 7 월초에 받게 되어서 앞으로 3 년동안은 체류문제로 일본을 나갔다 들어와야 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거주증도 받고, 국민의료보험도 받아서 일본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서류작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일본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국제면허증을 7 월에 받아서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곳을 걸어 다녔었는데, 걸어다니기 힘든 여름에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서 감사했습니다. 국제면허증은 1 년만 유효해서 그안에 일본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 실기시험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속 선교단체

5 년전에 YWAM 에서 DTS 를 한 이곳 일본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YWAM 베이스가 Yokohama 에 있게 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 년정도 전에 Hugo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시게 되었고 Yokohama 에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YWAM 과 몇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그 일을 막으셨고 Hugo 선교사님은 소속 선교단체 없이 혼고다이 교회소속으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그동안 선교단체를 알아보다가 Hugo 선교사님과 함께 YWAM Japan 과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YWAM 에서는 이곳 Yokohama 에 Base 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 저희를 지원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Hugo 선교사님은 이제 YWAM 소속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5 년전의 기도와, 2 년전에는 막혔던 문이 이제 하나님이 열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임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YWAM 에서 교육받은 일본청년들도 이 소식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YWAM Yokohama 베이스가 생기게 되면 같이 사역할 선교사님들을 YWAM 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 많은 일본 청년들을 교육하여 선교사로 또는 선교사적 삶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꿈을 꾸니다.

다양한 학교사역의 기회들

저희는 지난 5 월부터 Noah International School (N.I.S)에서 영어와 컴퓨터코딩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외국인 학교가 아니라 일본 공립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대안학교입니다. 지난 몇 개월 학교에 있는 동안 특수교육관련 지식들이 필요하고 또한 부모들이 그와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립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 중 컴퓨터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특수교육과 컴퓨터 프로그램 경력이

있어서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하나님은 저희를 꼭 필요한 곳에 보내 주셨을 알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Nobi Nobi Nova 라는 유치원에서 영어를 10 월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좋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관해 듣고 저희를 통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라서 예수님과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시간에 방과 후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8 월부터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곳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저희 부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라 생각하며 가르치고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Burning Hearts Community

8 월달 2 주간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첫주는 개인적 휴식을, 두번째 주는 스테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모임의 방향에 대해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테프 한사람 한사람을 만지셨고 또 스테프간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언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그리고 예배공동체의 근본목적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방문

이시노마키 오아시스 교회 (石巻オアシス教会)를 혼고다이 교회 원로목사님 부부와 같이 8월에 두 차례방문 하였습니다. 이곳 요코하마에서 500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2011년 쓰나미로 많은 피해를 본 어촌 마을입니다. 혼고다이 교회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봉사를 하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10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쓰나미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고 사람들 마음도 아직까지 큰 상처로 남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한국 부부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시골교회처럼 정이 넘치고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두분 선교사님은 더 외진곳에 교회를 개척하기위해서 본 교회를 담당할 사역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간증을 나눌 시간이 있었고 믿음의 선배이신 원로목사님 부부, 두분 선교사님과 좋은 교재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름휴가

8월 첫째 주 한주를 휴가 기간으로 정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나가노에서 2박 3일을 보냈고, Hugo 선교사님과 하루일정으로 가까운 계곡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정후원

5월에 저희를 후원하는 첫번째 재정후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온누리교회에 유스를 섬겼을 때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성인이 되어 저희 사역에 재정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다음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은 미국에서의 다음세대 사역의 열매를 이곳 일본에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앞으로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희에게 다가와서 너무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기도제목

1. YWAM 베이스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하나님은 저희부부에게 각각 일대일양육을 해야 할 사람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대일 만남이 깊은 교재와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3. Burning Hearts 예배에 많은 일본 현지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4. 일본어 공부에 많은 진척이 있을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캘리포니아는 산불로 남부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소식을 먼 곳에서 접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